

■ **현장과 시각** ■

‘바다 전봇대’는 안 뽑히나



채희중

사회2부 차장

말았듯 ‘바다의 전봇대’들도 쉬 뽑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국립공원 규제에 대해 주민들과 전남도는 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개발을 제약하는 ‘올가미’로 보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은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일 뿐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400여개의 아름다운 섬이 병풍처럼 둘러친남도해 해상국립공원은 국내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35%를 차지한다. 이중 전남은 5개 시·군(17개 읍·면)에 걸쳐 2천321.51km에 달하며, 이는 전국 해상국립공원의 69.3%다.

대불산단 전봇대 사건 이후 전남도는 박준영 지사가 지난 달 당선인 신분이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해상국립공원 규제완화를 건의하는 등 도 차원에서 규제를 풀기 위한 전방위 전략을 구사해 왔다.

전남도는 국립공원 지역 전체면적 중 99.2%를 개발행위가 제한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노후 건물 개·보수, 조상의 묘를 돌보는 일, 농기계 이용도 등을 내는 일 등 모든 기초 생활을 제약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전남의 다양한 섬 관련 개발 프로젝트들도 규제에 묶여 있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은 확연히 다르다. 개발을 위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얻는 이익 보다는 유산을 보존해 50년, 100년을 이어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과가 중국에는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이달 초 전남도에서 열린 국립공원 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협의회에서 주민 대표들은 어떤 식으로든 최대한 규제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같은 날 전남을 방문한 박화강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은 자연환경을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를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립공원이 모든 국민의 즐거움을 위한 공원이라는 점에 이의가 없다면, 정부와 지자체, 공원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총망라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싶다.

주민의 일상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제약들은 해제하고, 개발과 관련해서는 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합일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chaee@kwangju.co.kr

“삼성 로비 담당 임원 30명 명단 제출”

김용철 변호사 삼성특검 출석 참고인 조사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2일 오전 김용철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의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김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뇌물이 오고 간 구체적 일시와 장소·방법·횟수 등 ‘로비 의혹’을 뒷받침할 구체적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의 로비 대상 공직자였고,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차명계좌 개설과 관리에 관여했다’는 지난 5일 천주교사제단의 폭로 내용에 관한 진술을 듣는 한편 지난 11월 발표한 ‘떡값 검사’ 명단에 대해서도 진술을 청취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류봉투 1개를 지참하고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로비에 관해 전반적인 자료를 준비해 왔다”고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은 떡값이 아니다. 국제청이나 금감원 등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차명 계좌나 차명 주식이 가능했느냐”며 “거대한 부패에 왜 눈을 감느냐, 본질적인 시스템이 문제다. 이번 수사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거대한 부패에 둔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철 변호인단’의 김영희 변호사는

“삼성그룹에서 정·관계와 법조계 등 다양한 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담당했던 임원들 중 핵심적인 3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명단에는 삼성 구조조정본부 외에 일부 계열사 임원들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정부 부처·기관 등을 상대로 상시적으로 로비를 담당한 핵심 임원이라고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국회와 정치권도 있고, 국제청도 있다. ‘거기는 누가 담당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했다”라며 “이런 부분을 조사하면 실제관계가 밝혀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제출한 것이다. 특검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관련 자료를 소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검에서 차명계좌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던 일부 임원도 명단에 들어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영희 변호사는 사제단 등이 공개한 기존의 로비 대상자 5명 외에 ‘추가 폭로’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다”고 말해 추가 발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전체 로비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며 사제단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후보가 11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의 한 풍력발전소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유세를 하고 있다. 오바마 후보는 이날 미시시피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오바마, 미시시피 경선 압승

흑인 지지 힘입어...대의원 확보 힐러리와 격차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미시시피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꺾고 승리를 거뒀다.

오바마는 11일 오후 10시40분 현재(현지 시간) 28%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56%의 지지를 얻어 42% 득표에 그친 힐러리를 큰 표차로 앞서며 승리를 예고했다.

CNN을 비롯한 미 언론들은 오바마가 흑인 유권자들의 압도적 지지에 힘입어 미시시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로써 오바마는 지난 4일 ‘미니 슈퍼화요일’ 대결 때 텍사스·오하이오주 프라이머리에서 힐러리에 패한 뒤 8일 와이오밍주 코카스(당원대회)와 이날

미시시피주 프라이머리에서 연승하며 다시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오바마는 확보 대의원수에 있어 힐러리와 격차를 더 벌리게 됐다.

하지만 오바마가 미시시피주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하더라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위한 대의원수 2천25명에는 아직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민주당 경선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시시피주 프라이머리 이전까지 오바마는 1천591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반면, 힐러리는 대의원 1천467명을 얻는 데 그쳤다.

미시시피주의 경우 흑인 유권자가 36%(2000년 인구센서스 기준)에 달하며, 더욱이 민주당 프라이머리 투표등록자의

70% 가까이가 흑인 유권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날 출구조사 결과 미시시피주 프라이머리에서 인종간 뚜렷이 대조되는 투표성향을 보였다.

CNN에 따르면 흑인 유권자의 경우 91%(오바마)대 9%(힐러리)로 오바마에게 ‘싸늘이표’를 몰아줬고, 반대로 백인 유권자들은 72%대 21%로 힐러리에 표가 쏠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미시시피주 프라이머리는 오바마의 승리가 예견됐던 데다가 대의원수도 33명에 불과해 향후 경선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날 22일 대의원 158명을 놓고 경쟁을 벌일 펜실베이니아 프라이머리 결과가 중대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李대통령 내달 15~21일 美·日 방문

부시 대통령 초대 캠프 데이비드서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미국을 방문하는 데 이어 곧바로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찾는다. 한·일 간 연쇄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12일 오후 “이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가 다음달 15일부터 21일까지 미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미국, 일본 방문에 이어 조만간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 정상회담을 개최기로 하는 등 4강(強) 외교를 본격화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증진, 북핵사태 해결 방안 모색, 경제 세일즈 및 자원 외교 등을 펼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방미 기간 조지 부시 미 대통령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 것이며, 이 곳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로 초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미

국 방문에 대한 미국의 환영과 부시 대통령의 개인적 신뢰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 보편적 가치를 나누는 가치동맹 재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증진 도모 및 전략적,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모색 ▲북핵문제에 대한 양국간 긴밀한 공조방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대한 폭넓고 심도있는 협의 등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방미 기간 뉴욕 증권거래소 방문, 경제계 주요 인사 초청 간담회, 한국 투자설명회(IR)연설, 티 체니 미 부통령 주최 오찬 및 미국 의회 지도부와 의 간담회 등 양국간 이해의 폭 제고와 세일즈 외교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이어 귀로에 20일 일본을 방문,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간 셔틀외교를 재개하고 북핵사태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北 최악 인권탄압국, 한국 여성차별 여전

미국무부 2007 인권보고서

미국은 올해에도 북한을 세계 10대 최악 인권위반국에 포함하고 한국에서는 여성차별과 인신매매 등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11일 발표한 2007년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쿠바, 벨라루시, 우즈베키스탄, 에리트레아, 수단과 함께 세계 최악의 인권위반국으로 지칭했다.

국무부는 세계 190여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해 발표한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2005, 2006년 연속으로 최악 인권

위반국으로 분류했던 중국을 제외하는 대신 수단과 시리아, 우즈베키스탄을 10대 위반국에 포함시켰다. 보고서는 그러나 올해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전반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나라들” 중 하나로 “여전히 심각한 인권침해들이 무수히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전반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있으나 여성과 장애인, 소수인종 등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15~17일 中 전인대 국가주석·총리 선출

중국의 의회적인 제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주석,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격), 총리 등을 선출하고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제2기 정부를 정식으로 출범시킨다.

중간에 접어든 전인대는 15일 전체회의에서 국가주석·부주석에 이어 전인대 상무위원장·부위원장과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출하고 16일 전체회의에선 총리와 중앙군사위 부주석직 인사를 마무리한다.

전인대는 폐막을 하루 앞둔 17일 국무원 부총리와 국무원위원, 각부 장관 인선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2008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기출문제 합격비법 - 1년이 통한다.

7월 9일 공무원 합격입도직위

79~이전편 2007, 2008년 기출문제, 2008년 2월 23일 기출문제, 2008년 3월 1일 기출문제

합격비법, 기출문제, 4월 1일

한빛공무원학원 234-0034

40주년 기념 2월 3월반 특별이벤트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을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40년 전통의 합격신화!!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사무실 ☎361-8111 학원 ☎529-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대비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연태관 1명, 최영아 1명) 교수진 연세대학교, 동국대학교, 세종대학교,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한양대학교

개강 매월초 **합격** **국비무료**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 ☎361-8111 ☎529-8111